

- 040 이미숙 피아니스트와 계와 나 - 제0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1 김겨리 분홍잠 - 제0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2 박방희 붉은 장미 - 제0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3 사: 새김 동인지 한 치 혹은 반 치 - 윤희수 김서하 김배일
- 044 상백선 그라데이션
- 045 이해원 일곱 명의 엄마 - 제1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6 정 원 바람에 관한 몇 개의 상상과 - 제2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7 고은산 실존의 정반합
- 048 송문문 그림에도 불구하고 씨 - 제2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49 김신영 맨발의 99만보 - 제3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0 박성희 풍뎡이 날개로 지구를 돌다 - 제4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1 김재영 시간의 무늬
- 052 정연나 붉은 버릇 - 제4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3 주선균 3월의 DNA
- 054 송과니 내 지갑 속으로 이사 온 모터브
- 055 한선자 불발된 연애들 - 제5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6 최인숙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 - 제5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7 손한옥 13월 바람 - 제5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8 양현주 구름양조실록 - 제6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59 조유리 흰 그늘 속, 검은 잠 - 제7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0 양은덕 배나무 가지에 달팽이가 기어간다 - 제7회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1 이 령 시인하다 - 제8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2 최정란 장미키스
- 063 박숙이 하마터면 악을 뺐했네
- 064 최애란 종의 출구는 늘 열려 있다 - 제9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5 이사동 물렁한 통증 - 제23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6 임내영 우산을 버리는 습성
- 067 고경자 사랑의 또 다른 이름 - 제23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8 홍하표 통째로에서 꽃이 핀다 - 제23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69 권혁찬 바람의 길 - 제30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0 인수아 롤러코스터를 타는 오렌지 재킷 - 제30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1 허정분 바람이 해독한 세상의 연대기 - 제30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2 홍문식 갈매빛 내사랑 - 제30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3 주영희 가문바다가 연주하는 초록의 칸타탈레 - 제30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4 서화성 내 슬픔을 어디에 두고 내렸을까
- 075 최우서 펜로즈 계단
- 076 이평소 계와 늑대의 시간 - 제31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77 매듭을 풀 소리 - 2021 변방 제36집
- 078 송가 중의 송가 - 현대향가 제4집
- 079 유용수 허공을 걷는 발자국을 보았다 - 제32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80 서정미 나무의 칼
- 081 조수일 모과를 지나는 구름의 시간 - 제33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82 문학동인 볼륨 코로나 블루
- 083 김월숙 낯선 시간이 하얗게 빛난다 - 제34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84 정하선 자기에 돌이 누우면
- 085 이희정 슬픔이 부스럭 소리를 낸다
- 086 김규연 그녀의 무게는 가벼웠다
- 087 선종구 뿌리를 위하여
- 088 이종구 태어난 새는 날아야 한다
- 089 배은주 옆으로 누운 말들 - 제35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0 문병채 물 깊다 - 제35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1 이형규 생명의 맥줄을 놓다
- 092 화염 이명희 바람의 수첩 - 제35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3 홍시울 아무 쓸모 없는 가슴 - 제35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4 문렘마 북적이지 않는 꽃의 질서
- 095 권 늘 기억에 대한 오해
- 096 정하선 가볍고, 경쾌하게
- 097 김정숙 왜가리의 슬픔을 읽는 저녁 - 제38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8 정안덕 제2시집 내거리를 건너가는 산 - 제38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099 박해리 당신을 몰라봐서 애똥한 밤입니다
- 100 이기호 아지랑이에 떠밀려 길을 나서네 - 제38차 기획시선 공모 당선시집
- 101 배진성 서천꽃밭 달문 moon

달은 문이다 문은 열리고 달은 하늘에 이르는 길이다 달은 달(達)이고 문은 문(文)이다

가슴을 열고 반월문을 바꾸니 달문 열리는 소리 들린다 가슴에 문은 사람들 숨소리 들린다

달이 자꾸만 문을 기웃거린다 나는 아직 안토니오 가우디를 모른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도 모른다 달빛으로 백년의 꿈을 심는다

동쪽에는 평화공원이 있고 서쪽에는 평화학교가 있다 생명학교와 함께 있다 그 평생학교에서 가파도와 마라도가 보인다 가끔은 저 멀리 이어도와 서천꽃밭이 보인다

평생 베풀을 만드는 갈대와 역새가 있다 평생 곡비 노릇을 하는 새들이 있다 백 년을 날려 보내고 백 년을 울어야 비로소 하늘문에 닿을 수 있을까

수의 한 벌 얻어 입지 못하고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 낮에는 꽃들이 촛불을 켜고 밤에는 별들이 촛불을 켜다 달은 밤새 메밀밭 백비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파도는 밤낮으로 절벽에 비명을 썼다가 지운다 그렇게 백 년을 써야만 주춧돌 하나 온전히 세울 수 있을까

폭낭과 워싱턴야자수가 나란히 서 있다 야자수 쪽에서 해가 떠오른다 키 큰 야자수 그림자가 폭낭 가슴을 관통한다 폭낭 쪽으로 해가 기울어진다 넓은 폭낭 그림자가 훌쩍한 야자수를 안아준다

- 본문 「달문moon」 전문



이어도공화국 6

서천꽃밭 달문 moon

배진성 시집

시산맥

이어도공화국 6

서천꽃밭 달문 moon

배진성 시집



배진성(裴鎭星)

1966년 출생

1988년 《문학사상》 신인발굴 당선

198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당선

『이어도공화국 序 - 백 년 동안의 꿈과 사랑』

『이어도공화국 01 - 땅의 뿌리 그 깊은 속에서』

『이어도공화국 02 - 잠시 머물다 가는 이 지상에서』

『이어도공화국 03 - 길 끝에 서 있는 길』

『이어도공화국 04 - 꿈섬』

『이어도공화국 05 - 우리들의 고향』

yeardo@naver.com